

# 서구중심주의 담론을 넘어

교수칼럼

고인환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지배받는 지배자』(2015)는 한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미국 유학과 한국 교육·문화 엘리트들의 삶을 15년간 추적한 역사작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 대학의 글로벌 헤게모니에 지배받는 자들이지만 한국 대학과 사회에서는 지배하는 자의 위치에 놓인다. 대다수의 한국 엘리트들은 미국 대학과 한국 대학의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격차에서 오는 이점을 활용해 성공하려는 전략을 택한다. 또한 다른 계층이나 집단들이 자신들의 위치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튼튼한 사회적 보호막을 친다.

이러한 미국 유학과 엘리트들의 속성은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는 한국 지식인들 태도와 많이 닮아있다. 개화기 이래 한국 지식인들은 선진적이고 발전된 서구 문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왔다. 이들은 서양과 동양, 문명과 전통(야만), 인간과 자연, 이성과 감성, 남성과 여성, 백인과 흑인 등으로 대변되는 악명 높은 근대적 이분법을 자



(사진 = 중앙일보 DB)

발적으로 체화했다. 이제 근대적 이분법 너머, 즉 우리가 신봉했던 서구중심주의 담론의 이면을 진지하게 탐색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대항해 시대, 문명화, 선교 등으로 포장된 서구중심주의 역사의 한 단면을 들추어보자. 유럽인들이 들어오기 전 ‘인도양’은 모두에게 열린 공동의 자산이었다. 포르투갈인들은 1498년 이 미지의 해양에 들어왔다. 그들은 인도양에 ‘법적 공백’이 존재하며, 자신들이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포르투갈은 인도양에 국가 폭력을 들여왔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인도양을 ‘닫힌 바다’, 즉 일종의 ‘영

해(領海)’로 선언했다. 왕은 선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했다.

그렇다면 대서양의 경우는 어떠한가? 『노예선-인간의 역사』(2007)는 영국(1807)과 미국(1808)의 노예무역 폐지 200주년을 기념해 출간한 책이다. 하지만 미국의 주류 엘리트들은 이러한 고결한 행위를 축하하고 토론하지 않았다. 노예제 도라는 불온한 역사가 현재의 기득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자에 따르면, ‘노예선’은 “급속히 성장하는 대서양 자본주의 체제와 노동력의 지지대였다.” ‘노예선’은 전 세계 자본가와 노동자를 연결했다. 이와 같은 거대한 연

결을 통해 대서양 자본주의의 주요 순환 체제가 구축됐다. 이러한 폭력적 시스템이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서구중심주의 담론을 있게 한 뿌리이며, 우리 모두는 여전히 이 냉혹한 사슬에 연결돼 있다.

한국은 서구 제국주의를 모방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독립 이후 서구 열강의 개입으로 나라가 분단되었으며, 한국 전쟁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겪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 여전히 과거 제국주의자들의 메아리가 투영된 서구적 담론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문명’이라는 가면을 쓴 이 ‘야만’의 목소리를 넘어서야 할 때이다.

## 참여마당

권오창 (법학 1966)  
한국장학재단 사회리더대학생멘토링 멘토



## 바람직한 한국대학생의 모습

청년기는 생명력과 힘, 그리고 건강의 절정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도전 정신과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기도 합니다. 지혜와 모험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따라서 청년기에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여러 분야의 융복합을 요구하는 만큼, 전공 이외의 학문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고전을 중심으로 다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요한 사회 이슈에 대해 논설문을 작성해서 언론이나 학술모임 등에 기고하거나 발표해서 평가를 받아보고 퇴고하는 습관도 기르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국제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영어에 대한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또한 상당한 수준이 될 때까지 공부하면 좋을 것입니다.

어려운 학문이나 과제에 어려움을 마주할 땐 ‘자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동시에 과업을 훌륭하게 해낼 것이라고 자기 암시를 해보세요. 결단력을 갖출 필요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꿈에 대한 애정을 갖고 오직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원하는 꿈을 약속이라는 형태로 만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매일 4시간 정도는 일정표를 작성하여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이나 원하는 목표를 먼저 이룬 사람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잘 보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만큼 인생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머릿속이 복잡해지지 않게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 교수사회의 변화를 위해 - ③

## 대학교수들의 구시대적 권리행사



김종인(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김종인 교수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학 내부의 불합리를 절실히 체감했다고 말한다. 그는 내부자이자 관찰자로서 그간 직접 보고 겪은 문제들을 알리기 위해 칼럼을 연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총 6회 분량의 연재가 계획돼 있다.

※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은 대학에 자신의 재산을 투자한 것이 아니며, 대학의 재정을 후원하는 주체들로부터 운영을 위임받지도 않았다. 또 국민으로부터 어떤 정치적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학의 주인 노릇을 하려 한다. 이는 노조가 경영 참여를 넘어 경영의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비판을 받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립 대학교에서는 총장직선제가 재단의 전횡에 맞선 교수들의 주체적 대응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교수들이 총장직선제나 교수 중심의 총장 선출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럽 대학의 총장 선출 방식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시대착오적이다. 유럽의 대학들과 한국의 대학들은 역사성이 다르다. 유럽 대학들에서 교수들의 권한이 강한 것은 여전히 중세적 전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중세 유럽의 대학들은 자치 도시와 같은 자치권들을 행사했다. 유럽의 대학들은 장인들이 모여서 일종의 동업자 조합인 길드를 조직하듯이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학자들의 동업자 조합인 대학을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치 조직에서 출발하는 경우

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이들 학자들과 학생들은 다른 직업의 길드 구성원들과 달리 유럽 각지에서 온 이들이어서 국제적 성격이 강했다. 이런 성격 때문에 대학을 해당 지역의 왕이나 영주가 통치하다가는 국제적인 분쟁의 소지를 낳을 수 있었다.

교수들을 중심으로 총장을 선출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학과의 교수들이 자신의 동료 교수를 선발하는 오래된 특권이다. 대학의 교수 선발의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지만, 실제적인 결정은 학과 교수들이 하고 총장은 사실상 학과 교수들의 결정을 승인하는 것에 가깝다. 대학에서 교수들 자신이 동료 교수를 선발하는 전통은 중세 유럽에서 대학이 생겨날 때부터 있었다. 새로이 대학교수를 선발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기존 길드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셈인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중세적 전통을 떠나서 교수들이 자신의 동료를 선발하는 것은 자신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그 분야에 어떠한 사람이 적합한 인물인지 잘 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 안다고

해서 교수 선발의 권한을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연구소나 정부의 여러 연구기관이나 감사기관 등에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가 많다. 그러나 기업에 속한 담당 부서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함께 일할 동료들을 선발할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선발 권한을 가진 주체가 그들에게 의견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대학은 중세시대의 길드적 대학이 아니다. 오늘날의 대학은 교수들이 설립한 것이 아니다. 대학의 설립 주체는 따로 존재하며, 대학의 소유권은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있다.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대학에 고용된 교수들이 마치 자신들이 대학의 주인인양 행세해서는 안 된다. 국가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국가의 주인인양 행세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가를 자신들 마음대로 운영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한국사회에 비정규직 문제가 경제계와 노동계의 가장 큰 의제로 등장하면서, 귀족노동조합의 채용장사 비리가 종종 보도된다. 시장경제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노조의 채용장사라는 황당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된 것은 한국경제가 국가주도로 성장했고, 기업의 소유주로 행세하는 대주주가 자기 자본비율이 매우 낮아서 정치적 외풍에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천적으로 주인이 완전한 주인이 아니다 보니 고용된 이들까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피고용인들의 채용장사와 유사한 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대학이다. 교수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자행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신성불가침의 영역인양 포장한다. 교수들은 동료 교수를 선발하는 권한을 움켜쥐고서는 선발과정을 마치 추기경들의 교황선출 과정처럼 철저히 비밀에 부친다.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비밀에 부치는 것이 아니라, 추악한 선발과정이 밝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비밀에 부치는 것이다.

### 〈연재칼럼 목차〉

1. 강사법 시행과 총장 선출
2. 대학의 주인은 재단이나 교수가 아닌 사회
3. 대학교수들의 구시대적 권리 행사
4. 교수 길드의 전근대적 폐쇄성, 대학교육 낙후
5. 교수 길드의 해체를 위한 국가공인박사제도
6. 교수들의 관습적 권한을 폐기해야 한다